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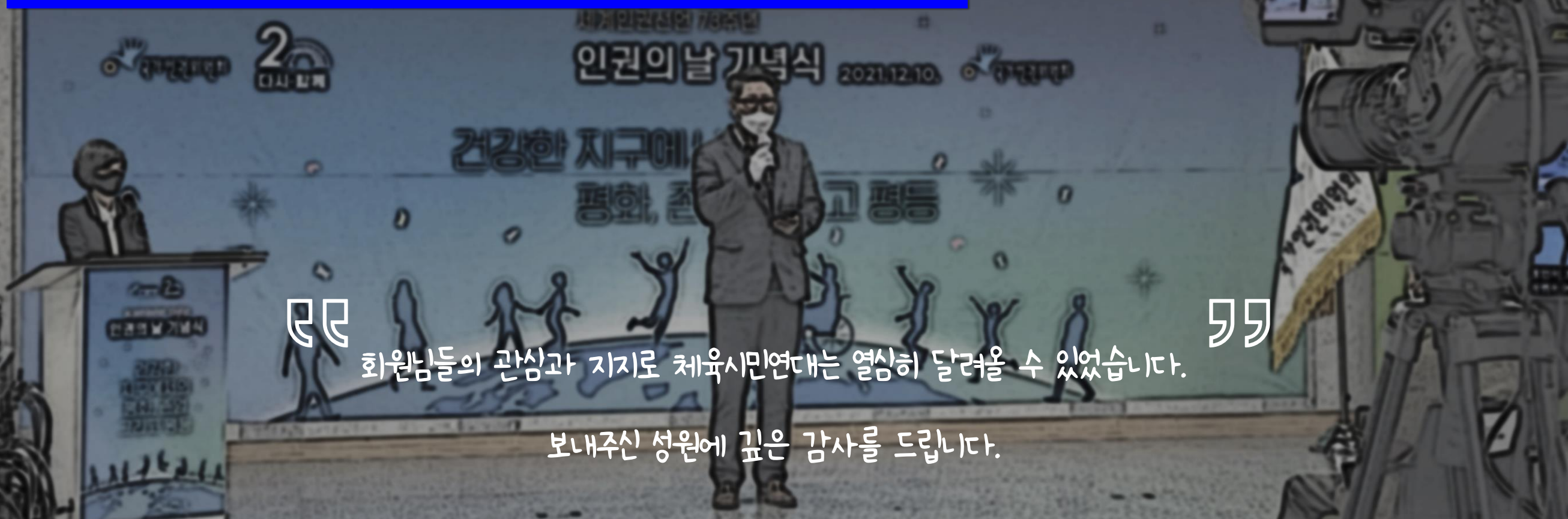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46호 **(특별호)**

2021.12.10 세계인권선언 73주년 인권의날 기념식

체육시민연대

대한민국 인권상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수상



ㄹㄹ

회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로 체육시민연대는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ㄹㄹ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세계인권선언 73주년 인권의날 기념식
대한민국 인권상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감사의 인사

안녕하십니까, 체육시민연대입니다.

먼저, 귀한 상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 큼니다.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활동해주신 체육시민연대 회원들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스포츠계 인권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은 저희에게 과분합니다.

더 열심히 뛰라는 격려로 삼겠습니다.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스포츠계 구조적 문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구태의 인식과 문화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선수들은 인권 친화적 환경과 문화에서 즐겁게 운동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폭력과 성폭력, 일상적 통제,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보다 안정된 신분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해야 하고

스스로 인권 지킴이가 되어야 합니다.

체육단체, 협회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그 길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산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스포츠계 인권 침해와 예방을 위한 조사와 권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한동안은 계속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체육시민연대

인권의 날 기념식

2021.12.10.



인권의 날 기념식

2021.12.10.



건강한 지구...
평화... 그리고 평등



체육시민연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세계인권선언 73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2021.12.10.



인권의날 기념식 다시보기 링크
<https://youtu.be/xtzMH4EeE7A>



○ 체육시민연대는 2002년 창립한 한국사회 스포츠 분야 최초의 시민단체임.

- 2000년 5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장희진 선수는 자유형 50미터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국가대표에 선발됨. 하지만, 학교기말고사 시험을 위해 태릉선수촌을 이탈해 학교에 갔다는 이유로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대표선수자격을 박탈당하고 향후 1년간 국가대표팀 및 상비군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51개 대학 체육관련학과 교수 250명이 서명운동을 벌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처음으로 일어남.
- 장희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개혁을 위해 전국 체육과 교수, 체육교사, 언론인, 변호사, 체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이 힘을 모아 2001년 10월 6일 올림픽파크텔에서 발기인 대회를 거쳐 2002년 5월 393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함(초대 공동대표: 한형식 前서울체고 교장, 정성태 前서울대 교수, 주원홍 前삼성증권 테니스 감독).

○ 체육시민연대의 핵심사업

1)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2) 스포츠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3) 정부의 체육정책 감시 및 견제

○ 주요활동

-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 책임자 처벌 및 합숙소 폐지 요구
- 2004년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선수 폭력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체육계 폭력근절 축구 기자회견, 1인시위 진행
- 2006년 여자프로농구 감독 성폭력 사건 가해자 영구제명 요구 및 스포츠성폭력 근절 기자회견
- 2006년 학생선수 인권 및 학교스포츠 정상화 캠페인
- 2007년 체육대학 오리엔테이션 폭력문화근절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및 대학 항의방문
- 2007년 동대문 운동장 철거 반대운동
- 2011년, 2016년, 2018년 '스포츠는 평화다!' 반전, 반핵, 평화 마라톤 개최
- 2015, 2016, 2017년 체육 관련 학과 학부생을 위한 '몸글몽글' 글쓰기 개설 1-3기 총 50명 배출
- 2015년 평창동계올림픽 환경파괴 반대 및 가리왕산 지키기 운동 전개
-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체육인 시국선언
- 2019년 스포츠미투에 따른 스포츠분야 성폭력 근절 연대 활동
- 2020년 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및 연대 활동
- 2020년 국내외 시민단체와 연대활동: 문화연대 체육위원회, 스포츠문화연구소, 스포츠인권연구소, 신일본스포츠연맹, 프랑스스포츠시민단체 등과 연대해서 스포츠인권 캠페인 주도
- 정부기관과 거버넌스 구축: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스포츠인권포럼 발족,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 작성,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문지지 및 연대활동

1. 창립과정 및 역대 활동 핵심 인사

- 체육시민연대의 창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일은 2000년 5월 벌어진 장희진 수영선수 사건이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녀는 중간고사 시험을 치러 태릉선수촌을 이탈해 학교에 갔다는 이유로 수영연맹으로부터 대표선수자격을 박탈당한다. 1년간 국가대표팀 및 상비군선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덤이었다. 이에 체육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학생 선수의 학습권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Lim, Love, & Lim, 2015; Nam et al., 2018).
- 체육시민연대는 이 사건 이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1년 10월 6일 올림픽파크텔에서 발기인 대회를 했다. 이후, 체육시민연대의 이름으로 2002년 3월 두 번에 걸쳐 '한국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시민연대 긴급 연속 토론회'(주제는 김운용 사퇴를 계기로 본 한국 체육계 지도자의 현실과 문제점, 한국 체육시스템의 개혁과 대안, 한국 체육체제의 변천사를 통한 체육단체의 올바른 대안 모색 등)를 개최한다. 한형식 체육시민연대 창립 준비위원장(당시 서울체고 교장)의 개회사는 다음과 같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체육시민연대는 한국체육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절름발이 한국체육, 비틀거리는 체육계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을까?를 펼쳐 보이고자 합니다.(체육시민연대 창립총회 자료집, 2002)”
- 2002년 5월 '만인이 즐기는 스포츠세상'을 모토로 국내 스포츠 분야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전한 체육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393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했다. 초창기 체육시민연대의 구성원은 나름대로 직군을 대표하는 시민들로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초창기 발기인 대회와 정식회원으로 참여한 사람을 살펴보면 언론인, 체육교사, 생활스포츠 동호인, 엘리트스포츠 지도자, 의사, 법조인 등 다양했다.



사진 왼쪽부터 2000년 당시 장희진 선수, 2002년 체육시민연대 총회 및 창립대회

- 체육시민연대의 집행부는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국으로 운영됐다. 집행부의 시기 구분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의 임기가 크게 달라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집행부 1기(2002-2004), 2기(2005-2009), 3기(2011-2015), 4기(2016-2020), 5기(2021-현재)로 구분했다.
- 1기 공동대표는 한형식(전 서울체고 교장), 정성태(전 서울대 교수), 주원홍(전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3명, 운영위원장은 나영일(서울대 교수), 집행위원장은 안민석(당시 중앙대 교수,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맡았다.
- 이후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역대 공동대표로는 2기 강신욱(전 단국대 교수), 2-3기 나영일(서울대 교수), 3기 류태호(고려대 교수), 4기 허현미(경인여대 교수) 교수 등이 활동했다.
- 역대 집행위원장은 2기 류태호(고려대 교수), 3기 허정훈(중앙대 교수), 김상범(중앙대 교수). 4기 정용철(서강대 교수), 오정수(단국대 교수) 교수 등이 있다.
- 2021년 현재 5기 공동대표는 김상범(중앙대 교수), 허정훈(중앙대 교수), 김덕진(평화 마라토너) 3명이며 5기 집행위원장은 홍덕기(경상국립대 교수) 교수가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 5기 집행부 구성인원은 스포츠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집행위원들과 사무국 상근 활동가 2명이 활동하고 있다



사진 왼쪽 위부터 2007년도 정기총회, 2008년도 정기총회, 2013년도 정기총회, 2018년도 체육시민연대 후원의 밤

2. 핵심사업

1)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 체육시민연대를 대표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의 정립이다. 장희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는 2003년 3월 벌어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엘리트스포츠 체계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불러왔다(강신복, 2003). 이후 체육시민연대는 책임자 처벌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교육부와 문화관광부 앞에서 전개하며 한국 엘리트 체육의 구조적 문제점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냈다. 체육시민연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의 정립’을 위해 성명서, 언론 기고,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2007년에는 전국체전이 열리는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합숙소 폐지’ 피켓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체육시민연대의 초창기 활동들은 보수적인 체육계에서 보기에 관례를 깨는 행위로 여겨져서 엘리트 스포츠 현장에서 동의를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의 정립’은 교육부의 학교체육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또한, 2007년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국회 축구 결의안’, 2011년 ‘학교체육기본법’의 제정,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시행 등 성과로 이어진다(홍덕기, 2021).



사진 왼쪽부터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 사건 당시 주원홍 前삼성증권 테니스 감독 1인 피켓 시위, 합숙소 폐지와 체육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기자회견(한형식 前서울체고 교장, 안민석 前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참석)

2) 스포츠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로 대표되는 체육시민연대의 핵심사업은 폭력, 성폭력 등 스포츠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의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부분으로까지 확대됐다(홍덕기, 2021; 홍덕기, 류태호, 2007). 예를 들어, 폭력의 경우는 2004년 11월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선수 폭력 사건이 사회문제가 됐다. 이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폭력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체육시민연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강신욱, 2004). 또한, 2005년 한 프로배구 감독의 선수 폭력 사건에 대해 '체육계 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릴레이 일인시위를 일주일간 진행했다. 한편, 성폭력의 경우는 2007년 여자프로농구 감독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기자회견과 릴레이 일인시위를 진행했고 감독의 사과 및 영구 제명을 이끌었다(안민석, 홍덕기, 2019).



사진 왼쪽부터 2005년 체육계 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07년 여자농구단 성폭력 관련 기자회견

- 체육시민연대의 이러한 노력과 KBS에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를 다룬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 '코트의 마피아', '슬픈 금메달' 등의 방송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 인권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홍덕기, 2021).



사진 왼쪽부터 (모두 2008년, KBS)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 코트의 마피아, 슬픈 금메달 방송 화면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초등학교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2009년 '중도탈락 학생선수', 2010년 '대학교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시행을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침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9년 '스포츠인권 정책포럼'의 발족을 통해 스포츠인권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정책 사업으로 들여온다. '스포츠인권 정책포럼'의 공동대표는 강신욱 단국대학교 교수(당시 체시민 공동대표), 운영위원장은 류태호 고려대 교수(당시 체시민 집행위원장)가 맡게 된다. 또한, 포럼 운영위원에 50% 정도가 체육시민연대의 집행위원으로 꾸러지게 되면서 체육시민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스포츠 인권 문제에 대응했다(정준영, 2009).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와 '스포츠인권헌장'을 발표했다.
- 스포츠 인권침해 문제는 스포츠 분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최근 일련의 스포츠 미투사건 이전까지는 밖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홍덕기, 2021). 따라서,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으로 피해 당사자가 직접 연락이 와서 상담하는 것 또한 체육시민연대의 주요 업무였다.

다음 장 계속

3) 정부의 체육정책 감시 및 견제

- 체육시민연대는 정부의 체육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상시적으로 전개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故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인수위원회에 체육시민연대 이름으로 제출한 체육개혁 10대 과제다(표1 참고).

표 1.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 체육개혁 10대 과제

순번	과제명
1	국무총리 직속 체육위원회 설치
2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
3	'엘리트스포츠 패러다임'에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정책 기조 전환
4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확산 및 지원
5	학교와 지역사회 체육연계 시설 확충
6	체육지도자 인력확보와 처우개선
7	어린이·청소년 체육 활성화 지원
8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9	프로스포츠 노조설립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10	정기적 남북 스포츠 교류 및 국제대회 시 남북 단일팀 구성

- 또 다른 예로는 2006년부터 매년 진행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안민석 의원실과 협업하여 학생선수 인권 및 학교스포츠 정상화 관련 국정감사 자료집을 여러 차례 발간했다. 이 외에, 최근에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의 공정성 관련 문제제기(박상현, 2020)를 비롯해,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등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들의 비민주적 운영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며 모니터링 반경을 넓히고 있다.

3. 기획사업

1) 체육대학 폭력문화 근절

- 2000년대 체육시민연대의 주요 사업이 엘리트 스포츠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2007년 강장호 학생 사망사건은 전문체육인이 아닌 일반학생들의 폭력적 문화에도 관심을 두고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계기가 됐다. 2007년 2월 당시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신입생이었던 강장호 학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폭력으로 사망했다. 당시 경희대 등 타 대학 체육관련학과에서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얼차려를 주는 등 폭력적 문화가 언론에 보도되었다(안민석, 홍덕기, 2019). 체육시민연대는 '체육개혁실천을 위한 교수연대'와 함께 체육대학 폭력근절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체육과 교수로서 학생들의 폭력적 문화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언론에 보도된 대학을 항의 방문했다(한겨레, 2007년 3월 13일).
- 체육시민연대는 체육대학 폭력문화가 신입생 길들이기부터 시작해 대물림되는 구조에 대해 매년 2월 교육부에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사례가 보고되면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교육부에 요청하는 공문투쟁을 진행했다. 이는 교육부에서 매년 초에 각 대학 체육과에 폭력근절과 관련된 공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학교, 학과에서도 매년 '신입생 길들이기'란 명목으로 발생하는 폭력적 문화 근절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2007년, 체육대학 폭력근절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2) 반전, 반핵, 평화 마라톤

- 체육시민연대는 201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거버넌스 역할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내는 상황에 봉착했다. 그런 가운데 허정훈 중앙대 교수가 3기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스포츠는 평화다.'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일본의 '신일본 스포츠연맹'과 연대를 통해 제1회 '반전·반핵·평화 마라톤'을 개최했다. '반전·반핵·평화 마라톤' 대회 개최는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 및 평화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 제2회 '반전·반핵·평화 마라톤'은 '노근리 학살사건'의 장소인 충북 영동군 노근리부터 임진각까지로 상징성은 유지하되 거리를 축소하여 진행했다. 이때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지원을 받아서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국제학술교류를 주제로 '스포츠평화포럼'을 같이 개최했다. 이후 '스포츠평화포럼'은 정례화되어 스포츠, 인권,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형태로 발전한다. 이후로도 반전·반핵·평화마라톤은 2016년 3회(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부터 서울시 중구 일본대사관 소녀상까지 50km)와 2018년 4회(서울대학교 정문부터 서울시청 광장까지 12km)까지 이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2010년 신일본스포츠연맹 초청 반핵평화마라톤, 2011년 반전반핵평화를 위한 500km 국토종단마라톤 대회, 2013년 제2회 반전반핵평화 마라톤 대회, 2013년 국제스포츠 평화 포럼

3) '몸글몽글' 글쓰기 과정

- 체육시민연대 기획사업인 '몸글몽글' 글쓰기 과정의 운영방식은 한 반에 7명씩 글쓰기 반을 개설해 방학 8주 동안의 강의와 글쓰기 침묵지도를 병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글쓰기 수업은 체육인들의 체육 활동 경험을 논리적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함께 스포츠 분야 시민 활동가를 양성하자는 의도가 있었다. '몸글몽글' 과정은 3기까지 이어지며 총 5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수료생 중 몇몇은 체육시민연대에서 활동가로 일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사진 왼쪽부터 2015년 몸글몽글 수업 및 MT, 2017년 몸글몽글 수업

4. 연대사업

1) 국내외 시민단체와 교류

- 체육시민연대는 국내·외 시민단체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연대활동을 진행했다. 이는 시민단체 활동 특성상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여론의 이슈화를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었던 이유가 크다(참여연대, 2014). 체육시민연대의 경우, 문화연대와 공동으로 활동을 많이 했다. 문화연대는 문화적 관점에서 스포츠 분야의 시민운동 참여에 적극적이었으며 산하 '체육위원회'와 2011년 창립한 '스포츠문화연구소'를 통해 공동으로 성명서나 기자회견, 일인시위, 토론회 등을 전개했다(이경렬, 2020).



사진 왼쪽부터 2019년 체육계 성폭력, 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3.8 여성대회 시민난장 참여, 2019년 서울체고 교사 성폭력사건 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2019년 정종선 감독 구속영장에 대한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의 입장 기자회견

- 첫째, 동대문운동장 철거반대 운동이다(OSEN, 2007년 8월 2일). 당시 동대문운동장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체육사에 중요한 가치를 지녔으나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자인프라자 개발 정책으로 인해 철거위기에 놓였다. 그 상황에서 기자회견, 동대문 가두캠페인 등의 활동을 벌였다.
- 둘째,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산 개최와 친환경올림픽을 위한 시민운동이다. 하지만, 분산 개최가 무산되며 경기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이슈가 큰 문제로 부각됐다. 체육시민연대는 강원도 지자체의 재정부담문제와 경기시설 활용방안, 그리고 환경문제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와 연대해서 '가리왕산 지키기 운동'을 전개했다(Le Monde, 2015년 3월 4일).



사진 왼쪽부터 2007년 동대문운동장 철거반대 현수막, 2014년 가리왕산 지키기 운동

- 셋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체육인 시국선언이다. 이화여대 승마 입학특기생의 입학 비리였던 정유라 사건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시발점이 기폭제가 되어서 정권퇴진운동으로 이어졌고, 체육관련 학과 교수들의 연대 서명을 받고 그 과정에서 체육인 시국선언 '모욕과 자괴감의 스포츠 시대를 넘어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연합뉴스, 2016년 11월 7일).



2016년 권력사유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 체육인 시국선언

- 넷째, 2019년 '스포츠 미투(#Mee Too)'에 따른 연대활동이다. 2017년부터 문화, 예술계를 비롯한 한국사회 전반에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데 유독 체육 분야만 조용했다(정용철, 2018). 이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체육시민연대는 문화, 여성, 인권 분야 18개 시민단체와 함께 '조재범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렸다(이경렬, 2020). 공대위는 가해자 엄벌, 피해자 보호와 함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고 이를 계기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홍덕기, 2020).



사진 왼쪽부터 2019년 조재범 성폭력사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회의

- 다섯째, 국제연대이다. '반전·반핵·평화마라톤'을 통해 일본의 '신일본스포츠연맹'과 프랑스의 체육시민단체와의 교류가 이어졌다. 신일본스포츠연맹과 프랑시 체육시민단체의 초청으로 한국, 일본, 프랑스 간 교류하면서 스포츠 분야 시민활동의 국제적 연대를 모색했다.

다음 장 계속

2) 정부기관과 거버넌스 구축

- 체육시민연대는 때에 따라서는 정부 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도 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2000년대 후반 체육시민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축이 첫 사례다. 이후, '반전·반핵·평화 마라톤'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스포츠평화사업'을 진행했다. 2019년에는 스포츠패러다임의 변화를 목표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정부·민간합동 범정부적 거버넌스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가인권위원회 5개 부처의 차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스포츠, 인권, 여성, 장애인, 법조인,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해 1년 동안 총 96회 회의를 통해 7개의 권고문을 발표했다(홍덕기, 2020). 이는 스포츠 분야에서 전례없는 일로 민간위원 15명 중에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 출신 인사 7명이 합류했다. 이런 거버넌스 속에서 만들어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7개 권고안은 기존의 한국 스포츠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본 초석을 잘 다져놓았다.

한눈에 살펴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7대 권고안

제 1차 권고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확립과 정부 및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 혁신
제 2차 권고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제 3차 권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 스포츠 인권 증진 및 모든 사람의 스포츠·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제 4차 권고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제 5차 권고	'일상에서 일생동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제 6차 권고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제 7차 권고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

사진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7547>

다음 장 계속

5. 조직사업

1) 전문성 함양 및 홍보

- 체육시민연대는 조직사업의 일환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씨넷(CNet) 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체육계 시민사회 운동의 씨앗이라는 의미로 체육 분야 내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 밖의 저명인사들도 불러서 토론하고 전문성의 지평을 넓히자는 취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셔 체육계 현안을 주제로 일 년에 5회 내외의 포럼을 진행했다.



사진. 체육시민연대 CNet포럼(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매년 5회 내외 진행)

- 한편, 포럼과 더불어 체육시민연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기존의 체육시민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는 홍보에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소식지의 발행은 언론보도 이외에 체육시민연대의 활동을 회원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초창기 소식지는 사무국 역량의 한계로 인해 비정기적으로 이메일로 발송됐다. 이후 사무국 역량이 갖춰지면서 매주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SNS, 이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했다. 뉴스레터는 체육계 현안 관련 뉴스와 체육시민연대 소식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



사진.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매주 1회 발송)

6. 체육시민연대 활동의 의미

- 체육시민연대는 타 분야의 시민사회 운동보다는 늦었지만 스포츠 분야 최초의 시민단체로서 2002년 창립부터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히 활동하면서 한국 사회 스포츠 분야의 자정작용에 노력해왔다.
- 특히, 체육시민연대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오랜 기간에 걸친 활동(논평, 성명서, 기자회견, 포럼, 일인시위, 타 분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정부와 거버넌스 구축 등)은 스포츠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 문화, 인권침해에 파열음을 내며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데 공헌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대법 선고...2심 징역 13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9_0001682433&cID=10201&pID=10200

송두환 "평등·비차별 정신으로 코로나 극복해야" ...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

<https://www.news1.kr/articles/?4518958>

"복지부·문체부·스포츠윤리센터, 장애인선수 인권보호 개선 권고 수용"

<https://www.news1.kr/articles/?4517723>

'내우외환' 베이징동계올림픽... "올림픽 특수도 없어요" [신정은의 중국은 지금]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72886629277864&mediaCodeNo=257&OutLnkChk=Y>

전국체전 1년도 안남았는데... 울산체육회, 재선거 이어 갑질논란 [fn패트럴]

<https://www.fnnews.com/news/202112121739070940>

"공부 못하면 기술 배워라" ...10분 지각 학생에게 폭언한 체육교사

<https://www.news1.kr/articles/?4519309>

용산기지 스포츠폰드·소프트볼장 개방...산책로·체육시설 된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12/08/QL4AZMP65ZFMFKGF6ALPGTOQA/?

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공용차량 사적 운행에 음주운전까지...도 넘은 사상구체육회 간부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2081051517222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